

필요 발견 과정 및 결과

은피니티(Eunfinity)

2025-29211 김은지

D046404 임은영

팀원 소개

| | |
|-----------------------|--|
| 팀명 | Eunfinity : 김‘은(Eun)’지와 임‘은’영의 ‘Infinity(무한)’한 가능성.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무한한 성장과 발전 을 상징 |
| 팀원 | 김은지, 임은영 |
| 해결하고 자 하는 문제 영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복막투석을 하는 만성신질환 환자들의 질환관리 기록 디지털화?복막투석 기록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앱이 2024년 6월 도입 (<i>limitation: 협력의료기관 환자만 사용 가능</i>)복막투석 기록과 더불어 투석도관 감염관리, 식단관리 등 다양한 건강지표를 포함 <p>→ 복막투석을 하는 만성신질환 환자라면 누구나 스스로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p> |

필요 발견하기 - 인터뷰 참가자

| 참여자 | 특징 | 선정 이유 | 모집 방법 | 인터뷰 장소 |
|-----|---------|--|--|--------------------|
| 1 | 복막투석 환자 | 스스로 만성신질환과 복막투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험 을 제공하고자, 실제 복막 투석을 시행하는 환자를 선정함 | 사전 일면식O 복막투석환자 → 보조적 혈액투석 시간에 맞춰 인터뷰 요청함 | 세신내과의원 인공신장실 |
| 2 | 전문가 |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청취하기 위해 선정함 | 복막투석실 근무 경험이 있는 지인 에게 인터뷰 요청함 | 비대면 온라인 (Zoom) |
| 3 | 복막투석 환자 | 스스로 만성신질환과 복막투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험 을 제공하고자, 실제 복막 투석을 시행하는 환자를 선정함 | 무작정 찾아가기 → 외래 진료일정에 맞춰 대기함 |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외래 |

필요 발견하기 - 환자 인터뷰 질문

| 기본 정보 | 복막투석 경험 관련 |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 외래 경험 관련 | 외래와 자가관리 연결 | 앱 사용 경험 | 질병 관리를 위한 지식 | 자유로운 의견 및 마무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질병을 관리하고 있는 누구이신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단을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현재 어떤 치료(병원 치료, 자가 치료 등)를 받고 계신가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막투석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나요?• 왜 복막투석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복막투석은 어디에서 하나요?• 복막투석은 언제언제 하나요(주기)?• 복막투석은 어떻게 하나요(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석 외에 평소에 질병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혈압, 체중, 배액량, 식이 등)• 그런 활동은 주로 언제 하시나요?• 왜 그렇게 질병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관리를 위해 노력하면서 느끼는 한계나 어려움은 있으신가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래 진료는 어디로 얼마나 자주 가나요?(주기)• 외래 진료에서는 어떤 내용을 누구와 주로 상담을 하나요?• 외래 진료에서는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와 주로 상담을 하나요?• 외래 진료에서 복막투석 안내나 지속적인 교육이 있나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외래 진료에서 어떤 점이 좋은가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막투석을 잘 지속하기 위해 외래 진료에서 어떤 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스터 투석액을 사용 중이라면, 박스터에서 개발한 MyPD라는 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혹시 사용 중이라면 왜 사용하게 되었나요?• 앱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가요?•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왜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까지 질병과 동행하고 복막투석을 해오면서 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 기술?• 질병과 동행하면서 앞으로 바라는/희망하는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생각이 있으셨나요?”•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

필요 발견하기 - 전문가 인터뷰 질문

| 기본 정보 | 환자 지원 내용 | 환자가 호소하는 어려움 | 추가 지원 방안 | 자유로운 의견 및 마무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어떤 일을 하십니까?해당 분야에서 몇 년간 일하고 계십니까? | <ul style="list-style-type: none">외래 진료/방문 주기는 얼마나 되나요?환자들에게 어떤 상담 또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복막투석 환자들이 자가관리 과정에서 특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복막투석 환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장기적으로 복막투석을 하는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임상 경험에서 볼 때, 복막투석 과정에서 어려움을 자주 겪는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나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환자분들이 치료와 생활을 병행하면서 자주 놓치는 관리 요소(예: 체중, 배액량 기록 등)가 있을까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현재 시스템에서 환자 교육이나 지원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현재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의료진 입장에서, 환자 지지를 위해 디지털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기존에도 환자들에게 앱을 권장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반응은 어땠나요?의료기관/의료진이 환자 앱을 적극 활용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오늘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생각이 있으셨나요?""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

인터뷰 결과 - P1(환자)

기본 정보

- 당뇨(25년), 만성신질환(3년)
- 복막투석(3년), 혈액투석(1년)

복막투석 경험 관련

- Why? 복막투석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해서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 Where? 집에서
- When? 4회/일, 5:30AM, 4:50PM, 8:30PM, 12AM
- Challenges? 배액이 잘 안 됨, 배가 불러서 걸을 때 중심이 잘 안 잡힘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 매일 산책, 탄수화물 줄이기
- 기록은 매일 똑같아서 안 함

외래 경험 관련

- When? 신장내과 2개월마다
- Who & What? 의사 – 약 처방 / 간호사 - 복막투석액 처방 및 상담

외래와 자가관리 연결

- 현 상황이 최선이라고 생각

앱 사용 경험

- 앱 모름, 기록 중요도 낮음(매일이 비슷해서)
- 문자로 정보 전달 기능(+)

질병 관리를 위한 지식

- 생활패턴 관리, 충분한 수면, 투석 빠트리지 않고 잘챙겨서 건강 유지하기

자유로운 의견 및 마무리

- 가족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 간 관계가 좋아야 함

5-4-14

질병에 대한 인식 반응

1. 어떤 질병을 관리하고 있는 누구이신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뇨, 혈액투석

2. “신단을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당뇨, 혈액투석 / 혈액투석 3년

3. “처음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 치료 받았을 때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시간적 제약 - +5, 시간 - 시간생활
시간 탄수

4. 질병 관리에 대한 태도(각자)
목표: 저자, 저자, 저자, 저자, 저자
의식: 저자, 저자, 저자, 저자, 저자

5.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용했던 지원기)
기록은 매일 똑같아서 안 함

6. 지금 생각할 때 더 좋은 해결방안? (필요했었던 지원기)
의식, 저자, 저자

7. 현재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요? 시간적 제약, 미숙도로 체계화된
복막투석이 사용방법

8. 어떻게 해결하는지 (주로 이용하는 지원기)
기록은 매일 똑같아서 안 함

9. pm)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다른 지원이 있는지?

10. 그런 활동은 주로 언제 하시나요?

20. 왜 그렇게 질병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기록, 저자, 저자, 저자, 저자
기록, 저자, 저자, 저자, 저자

21. 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면서 느끼는 한계나 어려움은 있으신가요?

22. 외래 진료는 어디로 얼마나 자주 가나요?(주기)
세교간소 2주 - 신장
2주 - 내분비

23. 외래 진료에서는 어떤 내용을 누구와 주로 상담을 하나요?
의사,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

24. 외래 진료에서는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와 주로 상담을 하나요?
+ 복막액(8주...) + 혈액(8주...) + 혈액(8주...) + 혈액(8주...) + 혈액(8주...)

25. 외래 진료에서 복막투석 안내나 지속적인 교육이 있나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O - Baxter, 혈액제한

26. 외래 진료에서 어떤 점이 좋은가요?
기록은 매일 똑같아서 안 함

27. 복막투석을 잘 지속하기 위해 외래 진료에서 어떤 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기록

30. 앱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가요?

31.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왜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32. 질병 관리를 위한 지식
질병까지 일정과 동행하고, 복막투석을 해오면서 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 기술?
생활 패턴, 감정, 충분수 (미숙, 저자)

33. 질병과 동행하면서 앞으로 바라는/희망하는 점?
기록, 저자, 저자, 저자, 저자

34. 오늘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생각이 있으셨나요?
가족의 도움이 가장 주요, 친동기x 의식.

35.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36.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결과 - P3(환자)

기본 정보

- 만성신부전 (10년 전)
- 복막투석(3년)

복막투석 경험 관련

- Why? 복막투석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해서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 Where? 회사, 집
- When? 2회/일, 5PM, 10PM
- Challenges? 출장, 장거리 이동이 힘들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 운동, 식단 조절
- 혈압, 체중, 투석액 배액량 기록하여 박스터 회사 관리자에게 전송

외래 경험 관련

- When? 신장내과 5주마다 1번씩 방문
- Who & What? 의사 – 약 처방 / 간호사 - 복막투석액 처방 및 혈액검사 결과 상담

외래와 자가관리 연결

- 별로 없음

앱 사용 경험

- 혈압, 체중, 투석액 배액량 기록하여 박스터 회사 관리자에게 전송

질병 관리를 위한 지식

- 식이 관리, 혈압 조절, 체중 유지

자유로운 의견 및 마무리

- 긍정적인 마음가짐, 가족의 이해, 직장에서의 배려

만성신부전. — 복막투석 3년
서로에게 편한 예약. → 사망률은 낮아
그치지 않으면 좋지 못한다.
여행이나 출장, 장거리 이동.
직장은 빠져나와 휴식시간
회사에서 휴식할 때 회사에서도 개인적인 것과
회사의 예상과는 어려운. 그리.
직장에 퇴근할 때 → 휴식으로 일정을
이제기하길
기술자가 잘 나와서 좋았던.
My PD 기록으로 의사에게 전송.
식이, 대체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
내 혈액(증상)

인터뷰 결과 - P2(전문가)

기본 정보

- 인공신장실 근무하면서 3년간 복막투석실 지원
 - Why? 복막투석을 시작하거나 외래 방문환자의 복막투석액 처방 또는 상담 제공
 - Where? 복막투석실
 - When? 복막투석 시작 단계에서는 매일 방문, 외래 환자는 1~3개월 간격으로 방문, 그 외, 이전에는 복막투석실 간호사가 모든 call을 받았다면 현재는 투석액 회사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 Challenges? Compliance가 떨어지면 헬액투석으로 변경이 필요함

병원에서 환자 지원 내용

- 배액량 조절
 - 감염관리(복막염)
 - 기계 조작 및 오류 발생시 대처
 - 고령이거나 건강 문제력이 낮은 경우, 자가 관리의 지속 어려움

추가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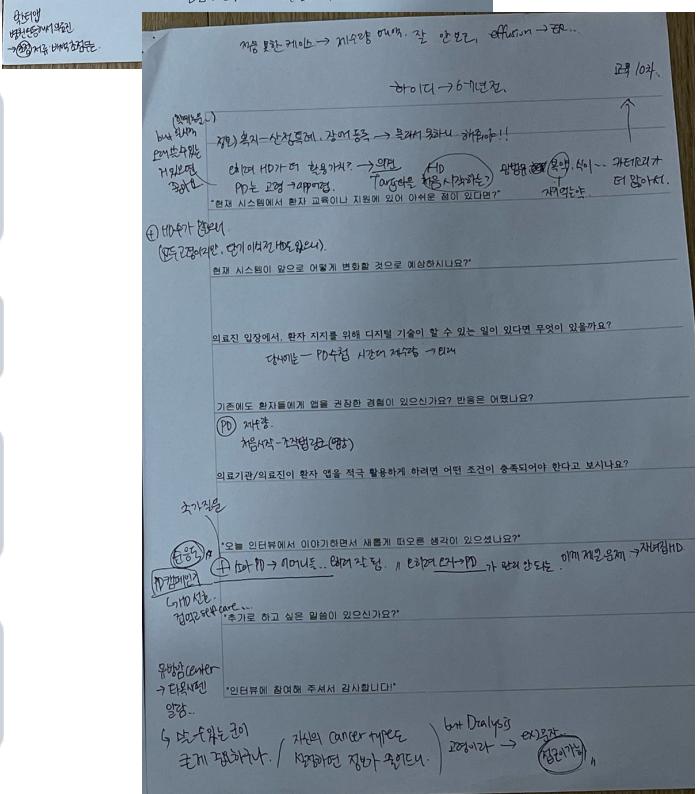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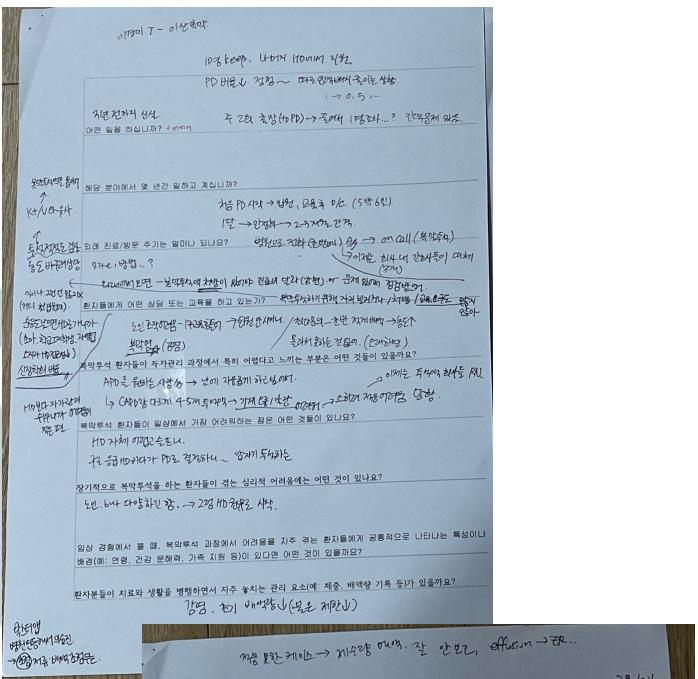
- #### • 복지와 관련된 지원 내용 및 절차

필요한 기능

- 몸무게, 제수량 등 데이터 관리
 -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경우, 정보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
 - 도움되는 정보 링크

자유로운 의견 및 마무리

- 최근 복막투석을 시행하는 환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 범위를 만성신부전 환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 어떤 방식이든 대상자에게 적절한 형태의 관리와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인터뷰 결과 - 새로운 이야기 요약

- 초반에는 배액이 잘 안 되는 것이 가장 흔하면서 당황스러운 부분임.
- 식이 관리와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가장 힘듦.
- 현재는 질병에 많이 적응이 되었으며,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임.
- 가족 및 직장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함.
- 건강 정보 기록 여부는 환자마다 다름.

- 복막투석은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치료법임.
- 복막투석 환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이제는 투석 회사의 간호사들이 복막투석실 간호사의 역할을 많이 커버하고 있음.

인터뷰 분석

SAY



DO



THINK



FEEL



인터뷰 분석

| | 추론 | 결론 | 질문 |
|--------------|--|--|--|
| 질병관리 행태 및 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장이식 전까지 복막투석에 잘 적응해 유지하려고 함 배운 절차에 따라 복막투석을 잘 시행하고 있음 유지하기 위해 여러 방면(운동, 식이관리 등)으로 노력하고 관리하고 있음 기저질환에 따라 환자마다 초점두고 관리하는 것이 다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운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복막염의 위험이 생기고, 복막투석을 중단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적응하려 함 신장이식 이전에 투석이 마지막 방안이고, 혈액투석보다는 복막투석이 의료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더 적기 때문에 스스로 철저하게 관리하려 함 기저질환에 따라 발생하는 만성신부전의 합병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저질환에 맞춰 관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막염은 주로 복막투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데, 환자들이 그 절차를 지속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진 만성신부전 환자들에게 개별화된 관리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
| 질병관리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패턴 맞추는 것과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움 식이 관리가 잘 안되면 몸이 잘 부음 식이관리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느낌 복막투석 초반에 주입량/배액량이 일치하지 않아 힘듦 힘들어서 살이 빠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초기 단계의 환자에게는 식이, 투석 패턴 및 관리 등 질병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가 요구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질병 관리에 익숙한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 제공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
| 지지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막투석 환자의 중요한 지지체계는 가족 직원의 건강과 업무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해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와 치료 공간을 제공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시간에 빠트리지 않고 투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투석하는 시간이 길고, 건강유지가 중요한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가족 참여 중요함 직장 내의 유연한 근무 환경과 배려는 복막투석 환자의 치료 지속과 직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막투석 환자의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수가, 홍보 등) |

인터뷰 분석

POV

USER wants a NEED so that INSIGHT.

만성질환과 동행하며 (복막투석을 통해)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만성신부전 환자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어한다.

문제정의

만성신부전 환자들은 단순한 질병 관리를 넘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만성질환을 다루고자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요약

| | | |
|------------|---|--|
| 필요 발견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만성신부전 환자들의 경험을 redesign 하고자 함 | |
| | 환자(2명) : 복막투석 환자 | 전문가(1명) : 3년간 복막투석실 간호사로 근무 |
| | 복막투석 경험,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과 지식, 외래 경험 등을 질문함 | 환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과 지원 등을 질문함 |
| 인터뷰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식이관리와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을 경험가족들의 적극적 참여로 현재는 잘 적응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복막투석은 자가관리가 잘 되는 대상자에게만 적용 가능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많은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 인터뷰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만성신부전 환자의 질병관리 행위와 어려움, 지지체계에 대한 needs 추론, 이에 대한 결론 도출Problem statement <u>만성신부전 환자들은 단순한 질병 관리를 넘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만성질환을 다루고자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u> | |

5-4 칠자

질병에 대한 인식 범주
10. "처음 진단받았을 때의 치료와 비교하면, 질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 치료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질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 치료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질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 치료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질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 치료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질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요?

질병에 대한 인식(과거)
11. 언제, 왜 그런 변화가 생겼나요? 초반에 체온이 높았고 심장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질병에 대한 인식(현재)
12. 현재 어떤 치료(방법, 치료, 차기 치료 등)를 받고 계신가요?
보통 (4주) 흡연금지, 운동, 식단 (한국식), 운동, 산후조리원
복약투석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나요?
13. 복약투석은 어디에서 하나요?
집
복약투석은 언제까지 하나요(주기)?
4주 - 5주 3주 2주 1주
복약투석은 어떻게 하시나요(질치)?
그동안 연기 - 니코틴 - 세포암 치료하고, 충돌신경?
복약투석은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14. 왜 복약투석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흡사증, 흡사증
복약투석은 어디에서 하나요?
집
복약투석은 언제까지 하나요(주기)?
4주 - 5주 3주 2주 1주
복약투석은 어떻게 하시나요(질치)?
그동안 연기 - 니코틴 - 세포암 치료하고, 충돌신경?
복약투석은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15. 복약투석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나요?
집
복약투석은 언제까지 하나요(주기)?
4주 - 5주 3주 2주 1주
복약투석은 어떻게 하시나요(질치)?
그동안 연기 - 니코틴 - 세포암 치료하고, 충돌신경?
복약투석은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16. 복약투석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나요?
집
복약투석은 언제까지 하나요(주기)?
4주 - 5주 3주 2주 1주
복약투석은 어떻게 하시나요(질치)?
그동안 연기 - 니코틴 - 세포암 치료하고, 충돌신경?
복약투석은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17. 복약투석은 언제까지 하나요(주기)?
4주 - 5주 3주 2주 1주
복약투석은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18. 복약투석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나요?
집
복약투석은 언제까지 하나요(주기)?
4주 - 5주 3주 2주 1주
복약투석은 어떻게 하시나요(질치)?
그동안 연기 - 니코틴 - 세포암 치료하고, 충돌신경?
복약투석은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19. 그린 활동은 주로 언제 하시나요?
평일 오후 5시
20. 왜 그렇게 질병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BP → 개기 편한 기록 띄어쓰기 × (초반)
개인 맞춤형
21. 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면서 느끼는 한계나 어려움은 있으신가요?
개인 맞춤형
외래 경찰 관리
22. 외래 진료는 어디로 얼마나 자주 가나요(주)?
세상간소 2~3주 - 신자 3주 - 내원비
외래 진료에서는 어떤 내용을 누구와 주로 상담을 하나요?
이주 간호사와 협력 교수 / 복약투석 간호사
약 헌법
23. 외래 진료에서는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와 주로 상담을 하나요?
+ 남자인정(PAP...) 치료의 응용
남자인정 - 약 헌법
24. 외래 진료에서는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 남자인정(PAP...) 치료의 응용
남자인정 - 약 헌법
25. 외래 진료에서 복약투석 안내나 지속적인 교육이 있나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 → BAXTER 충분히
외래 진료에서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개인 맞춤형
외래와 자가관리 연결
26. 외래 진료에서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개인 맞춤형
복약투석을 잘 지속하기 위해 외래 진료에서 어떤 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개인 맞춤형
3. 치료를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당뇨, 고혈압 / 당뇨, 고혈압
3. 치료를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당뇨, 고혈압 / 당뇨, 고혈압
질병 관리에 대한 인식(과거)
4. 질병 관리에 대한 인식(현재)
5.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용했던 지원기)
기타 매일을 아침마다
6. 지금 생각할 때 더 좋은 해결방안? (필요했음을 자원)
이식, 뇌수 치료
질병 관리에 대한 태도(과거)
7. 현재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으로 체크
온전히 나에게
8. 어떻게 해결하는지 (주로 이용하는 지원기)
기타 마음에 매던 삶에 맞는
9. pm)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다른 지원이 있는지?

그린 활동은 주로 언제 하시나요?
평일 오후 5시
왜 그렇게 질병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BP → 개기 편한 기록 띄어쓰기 × (초반)
개인 맞춤형
외래 진료는 어디로 얼마나 자주 가나요(주)?
세상간소 2~3주 - 신자 3주 - 내원비
외래 진료에서는 어떤 내용을 누구와 주로 상담을 하나요?
이주 간호사와 협력 교수 / 복약투석 간호사
약 헌법
외래 진료에서는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와 주로 상담을 하나요?
+ 남자인정(PAP...) 치료의 응용
남자인정 - 약 헌법
외래 진료에서 복약투석 안내나 지속적인 교육이 있나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 → BAXTER 충분히
외래 진료에서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개인 맞춤형
외래와 자가관리 연결
복약투석을 잘 지속하기 위해 외래 진료에서 어떤 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개인 맞춤형
질병에 대한 인식 범주
10. "처음 진단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질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 치료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질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 치료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질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 치료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질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 치료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질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요?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18. 특성 외에 평소에 질병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영양, 체중, 배설량, 식이 등)
• 걸는걸.
• 먹는것 ↓ (포도당 두꺼워 청단↑ :')
• 물 → 물이며, 흰국.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19. 특성 외에 평소에 질병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영양, 체중, 배설량, 식이 등)
• 걸는걸.
• 먹는것 ↓ (포도당 두꺼워 청단↑ :')
• 물 → 물이며, 흰국.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20. 특성 외에 평소에 질병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영양, 체중, 배설량, 식이 등)
• 걸는걸.
• 먹는것 ↓ (포도당 두꺼워 청단↑ :')
• 물 → 물이며, 흰국.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21. 특성 외에 평소에 질병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영양, 체중, 배설량, 식이 등)
• 걸는걸.
• 먹는것 ↓ (포도당 두꺼워 청단↑ :')
• 물 → 물이며, 흰국.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22. 특성 외에 평소에 질병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영양, 체중, 배설량, 식이 등)
• 걸는걸.
• 먹는것 ↓ (포도당 두꺼워 청단↑ :')
• 물 → 물이며, 흰국.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23. 특성 외에 평소에 질병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영양, 체중, 배설량, 식이 등)
• 걸는걸.
• 먹는것 ↓ (포도당 두꺼워 청단↑ :')
• 물 → 물이며, 흰국.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24. 특성 외에 평소에 질병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영양, 체중, 배설량, 식이 등)
• 걸는걸.
• 먹는것 ↓ (포도당 두꺼워 청단↑ :')
• 물 → 물이며, 흰국.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25. 특성 외에 평소에 질병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영양, 체중, 배설량, 식이 등)
• 걸는걸.
• 먹는것 ↓ (포도당 두꺼워 청단↑ :')
• 물 → 물이며, 흰국.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26. 특성 외에 평소에 질병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영양, 체중, 배설량, 식이 등)
• 걸는걸.
• 먹는것 ↓ (포도당 두꺼워 청단↑ :')
• 물 → 물이며, 흰국.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27. 특성 외에 평소에 질병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영양, 체중, 배설량, 식이 등)
• 걸는걸.
• 먹는것 ↓ (포도당 두꺼워 청단↑ :')
• 물 → 물이며, 흰국.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28. 특성 외에 평소에 질병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영양, 체중, 배설량, 식이 등)
• 걸는걸.
• 먹는것 ↓ (포도당 두꺼워 청단↑ :')
• 물 → 물이며, 흰국.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29. 특성 외에 평소에 질병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영양, 체중, 배설량, 식이 등)
• 걸는걸.
• 먹는것 ↓ (포도당 두꺼워 청단↑ :')
• 물 → 물이며, 흰국.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30. 앱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가요?
• 걸는걸.
• 먹는것 ↓ (포도당 두꺼워 청단↑ :')
• 물 → 물이며, 흰국.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31.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왜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 걸는걸.
• 먹는것 ↓ (포도당 두꺼워 청단↑ :')
• 물 → 물이며, 흰국.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32. 지금까지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과 헤오면서 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 기술?
생활습관, 감기 충분히 (미루 심기)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33. 질병과 동행하면서 앞으로 바라는/희망하는 점?
• 걸는걸 X 유지, 시간여유화.

자유로운 의견과 마무리
34. "오늘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생각이 있으셨나요?"
가족의 도움이 가장 중요, 집들이 X 의식.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35.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36.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 관리를 위한 노력
37. — 복약주제 3도
복약으로 인한 어려움 → 사망률 높고, 나르주
그렇지 않으면 놓이 복용
어려운데? 약물기록 관리
복약을 놓이 위해 꾸준히
복약 경과록 작성하라. 회의록을 기록해보길
한번 더 배우면서 어려워. 그리.
각국에서 적용될 듯 → 전세계로 전파망
이전기록
간호사가 (ab)에서 전문가로.
MyPD 기록으로 희생자에게 전송.
누이, 대체로 대화로 이야기 부족.
언론화는 (증명사)

이경이 T - 아산 병역

PD keep. 나머지 PD에서 지우기.

PD 비율 ↓ 정점 ~ 따른 인자(여기 죽이는 상황).

1 → 0, 5, 10

기본 전가지 신설

어떤 일을 하십니까? + main

주 2회 출장(HPD) → 끌어서 1명짜...? 인력 문제 있음.

복약처방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몇 년간 일하고 계십니까?

KT/V와 우사

도시 지역도 경쟁 외래 진료/방문 주기는 얼마나 되나요?
등을 바꾸려고 상당
원자재, 방법...?

수시나 고정된 암이나
(의사 철학문제). 환자들에게 어떤 상담 또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술을 드는 면접기사이나
(의사 철학문제). 환자들에게 어떤 상담 또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복약처방 환자들이 자가 관리 과정에서 특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장화학비료
HIV보다 자가 관리
수원이나 어려움이
제일 편.

APD를 통하는 사람들은 → 낮에 자율롭게 하고 싶어.
→ CAPD 약 4~5개 투여 → 기계 대중/약간 어려워. → 느끼며 자동 어려움 증상.

HIV 자체 어렵고 슬프니.
그로 응급 HIV하다가 PD로 결정하니... 갑자기 두렵다는

장기적으로 복약처방을 하는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노인, 빅터 다양화된 것. → 2경 HIV 치료로 시작.

임상 경험에서 볼 때, 복약처방 과정에서 어려움을 자주 겪는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나
배경(예: 연령, 건강 문제, 가족 지원 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치료와 생활을 병행하면서 자주 놓치는 관리 요소(예: 체중, 배액량 기록 등)가 있을까요?

감염, 초기 배액 양 ↓ (물은 제한)

항생제

방진 및 항생제

→ 치료제 유전체 치료제

제공 못한 키트 → 저수량 페액, 잘 안 보고, effusion → PD...

교류 10차.

하이디 → 6~7년 전.

(질의응답)

but 홍사면

모래를 수 있는

거치면

좋아요

정부 복지-산정특례, 장애 등록 → 물려서 못하니-개유아!!

하여 HD가 더 활용 가치? → 의견

PD는 고령 → APP 어렵.

Targate를 처음 시작하는 HD

왕방법(복약, 식이...) 카테터가

더 많아서.

"현재 시스템에서 환자 교육이나 지원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먹는 약.

④ PD수가 문제

(HD 고정이지만, 단기 이식전 HD도 있으니).

현재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의료진 입장에서, 환자 지지를 위해 디지털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당시에는 — PD수첩 시간이 제수첩 → 빠져

기존에도 환자들에게 앱을 권장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반응은 어땠나요?

① PD 재수첩.

처음 시작 - 조직법 강조(영화)

의료기관/의료진이 환자 앱을 적극 활용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추가 질문

수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DO

복막두식 간호사
선생님이랑 주로
이제 (여서)선생님에게
질문을 못했던 것들에
대해 많이 대화한다

예 탄수화물을
잘 안 먹고,
그다음에 매일
1시간 정도씩
걸어요.

5시 반에 한 번 하고요,
아침에 그다음에 4시
50분쯤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8시 반에 한
번 하고 12시에 한 번.

예. 그냥 복막, 그 복도같을, 그러니까 배에
시금 이렇게 선이 연관돼 있어요.
수술을 했으니까 선을 그거를 그 배에 있는
선이랑 연결을 해서 연고 그 복속에 있는
두식액을 빼내고, (여서)선생님(과) 그런 꽉 빼내면
다시 세 두식액을 끌어넣고, 그러면 그
끌어넣는 걸 다다가 또 다음 그 두식액 때까지
빼놓지 않으면 때에서 어떻게 뭐 어떻게
작용을 해서 그 독성은 빼는 거 아니예요?
그럼 그다음에 또 빼내고 끌어넣고 빼내고
끌어넣고

외래 진료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한 피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의사)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고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해주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약을 바꿔서 다른 걸로 바꿔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요.

아침에 준비하고 그런 거
거기에 그걸 맞히고 그 외의
시간은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잠도 많이 자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지도 않고, 두식을
해야 되니까.

투석을 계속 하다
보면 저녁 때 하니까
피곤해서 투석 중에
잠들 때면 집사람이
안 자고 있다가 저를
깨워줘야 되거든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못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탄수화물도
잘 안 먹고요.

혈압을 잘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돼서
그때 재.

혈압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재고 퇴근하고 한
번 재고 두 번 씩 재요

혈당이 높은 것을
줄이려고 먹는 거를
갖다가 최대한
조금만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초반 1년은
기록했는데 항상
똑같으니까 기록
안 해

운동이나 식사나
투석하는 것은
매일 똑같아서
기록은 안 해

신장내과는 2달,
내분비과는
3달에 한 번씩
가

외래 진료는
연세세브란스로
2달에 한 번
씩 가요

외래 진료를 가면 주로
의사선생님이랑
상담하고
복막두식상에서
간호사랑 얘기하기도
해

(모든 상황의)
약을
거기서(외래
진료 의사) 다
처방을 받아요.

네, 패턴을 투석
시간에 맞게
모든 생활의
패턴을 맞추는
거죠.

칼퇴근 때 해서 집에
딱 와서 그때부터 밤
12시까지는 계속
투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은 못 갖는
거죠.

(당뇨는)
병원에
다니면서 약은
먹고 있고요.

요즘은 요즘 이제
작용이 돼 가지고 제가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까지
회사 생활을 하거든요.

복막 두식 하루에
4번 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만 이거
협액 투석하고, 예.

(투석
절차) 그냥
하는 거죠.

주기가요?
하루에 네
번

(복막투석은)
집에서 해요

운동이라보다
그냥 매일 매일
걸어요. 한 하루에
8천步에서 만 보
정도 그 정도.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충전을
많이 했다가, 또 업무를
보고 일을 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패턴을
바꿨지요.

식사량 줄이고,
싱겁게
먹으려고
했었습니다.

현재 복막 투석
중이다.

외식 줄이고,
운동도 하고 ..

(질병들)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몇년씩 계획을 세운다.
내가 해야될 것 ...
그러다 보면 병을 잊고
잘 살 수 있다. 병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앓으려고
노력한다.

소독 등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절차대로
시행하고 있다.

작년에 뇌출혈이 왔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
민감하고, 체중도
작년에 10kg로가
빠져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인터넷으로도
필요한 정보
찾아보고,
커뮤니티도
가입되어 있어요.

MyPD 사용중이다.
혈압, 체수량, 체중
등을 기록하여
박스터 지원에게
전송하고 있다.

예전에 저희가
병원에서도 교육할
때 앱은 사실 돈이
드니까 생각을 해보
적은 없지만

한자들에게 두식
처분성 검사하기
전이나 애드 때
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자네마다
문자 보내기였거든요.

처분들도 출판가 이게 혈액에
영역에서 자신이 몇 종류의
액을 가지고 늘어놓고 늘어놓고
여기 내 정답은 몇 수 있는 걸 찾
구는데, 이 같은 것은 내가
하는 방법은 딱히 방법은 그것만
보내거나 봐.

그때 저희 병원에 분야별
분야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
여기 그거는 각 병과별로 하는
내가 정답은 몇 수 있는 걸 찾
구는데, 이 같은 것은 내가
하는 방법은 딱히 방법은 그것만
보내거나 봐.

저는 복막투식
환자용 앱이 없 때
근무 있어서
환자들에게 사용을
권유한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그 앱기로 혈액에
진단과 치료법이 거기에서
해제하고 하는 걸
제공했었는데 저도 거기서 뭐
해제해서 혹은 저도 거기서 뭐
제공되었었을 때는 가능해
있었지만 저도 그걸 모르기는
한 거예요.

(간호사) 저희도
병원에서 앞에 두식
영역의 것 번째 교육할
때에는 교육을 10자 막
이렇게 나누 가지고
마치는요.

그럼 두식액이 잘 안
나왔을 때는 환자 분들이
자각을 하면 뒤로 복막에
전파해서 아침에 날았던게
자금 2. 날았는데 1.5kg에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라고 하면 또 이게
조정이 되니까

그대 그런 제수양 관리와 조정에
연락이 사원들은 어찌해 데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물어보거나
병원에 있는 간호사에게 물어보거나
병원에 있는 박스터 지원에게 물어보거나
그리고 간호사에게 물어보거나 그걸
해거나 해나온 그런 게 꼭 가능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THINK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을 잘 유지하는 거죠.

크게 기록을 그러니까 초반에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폐단에 맞춰 두식을 빼먹지 않고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유지를 해야죠.

가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관계가 좋아야지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지. 가정이 약 그러면 힘들어. 그게 중요하지.

복막 투석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되게 많이 도움을 줄 때부터

가족이랑 관계를 잘 지내야 돼요. 평소 때부터

솔직히 가족들이랑 어디 마음대로 나가서 외식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최대한 피곤할 때는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여든 자기 생활 폐단을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질병 관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생활 폐단을 잘 관리하고 잠을 충분히 자는 거예요.

그리고

집 사람들이 되게 많이 저한테 희생을 해야 돼요.

만족된다기보다 만족된다기보다 그냥 지금 삶을, 지금 삶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초반에만 한 복막 두식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일단 신장, 신장을 판명받기 전부터 음이 스스로 이렇게 월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뇨라는 게 이 정도까지 생각할지는 솔직히 초반에는 몰랐어요. 젊었으니까

이거(혈액투석)로 하면 회사에서 못 다니니까 복막투석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나와서 힘들었는데 이제 매일 걸으니까 이게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힘든 거 힘든 거는 여기에 적응하면 되죠.

보통 다른 병원에 가거나 그러면 그 신장 환자들은 악 치법을 안 해줍니다.

(개개 진료 종은 한) 계속 채크를 해야하는데 그게 늘 부담이 되어서 아예 다른 폐단 제거는 늘 부담이 되어서 대체로 혼자기 때문에 그 수준은 모르셔도 되는데 그 다음 면에서는 복막 좀 조절해야 되더라고 해서 저기에서 저기에서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경기력에 차요.

복막두식을 잘 유지하기 위해 외래 진료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거나 추가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 없다

해결할 게 있나요? 그냥 적응해 나가는 거죠

그냥 계속 순응하고 혼자 적응하는 거지

그때 좀 조심하고 절제를 해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자나간 때 즐겁게 생활했는데..

치료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생활은 그 폐단에 맞춰야죠. 거꾸로 제가

이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거야 뭐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냥 없는 거죠. 예 없는 거죠.

자기가 그냥 그 폐단에 맞춰서 그냥 삶의 만족을 그나마 느끼면서 살아야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갖는 것밖에 없어요.

혈액 투석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복막 투석만 할 때는 좀 힘들었는데 많이 좋아졌고

(질병에) 적응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잘 관리해서 이식할 때 까지 유지하는 것

환자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은 감염 관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주일에 교육받는 기간을 되게 힘들게 교육을 받고 가시는 것 같아요.

(기계투석 중) 오류가 생기거나 하면 되게 당황되고 또 밤에 투석을 하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언단 말씀 활용할 수 있는 연락처를 생활에 마련해두면 복막 두식 투여가 훨씬 크게 편리해지겠지 수도 물과 우유에 물린 생기는 걸 잘 관리요.

이전에도 CKD 환경대가 대부분 높아서 그렇게 감각이나 순응도 낮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일단 환자의 순응도가 떨어져서 복막 두식을 진짜 하기가 힘들구나

트히 복막은 (질병에) 허약하거나 기력이 약 이쁜 것도 빼놓고 물어서 좀 볼 수 있었던 데도 좋을 것 같긴 해요.

혈액 투석 환자와 똑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복지에 관련된 것 (예를 들면 산정 특례라는가 아니면 정액인 등록 이런 거에 대한 정보)은 어쨌든 혈액 투석 환자한테 주는 것처럼 이제 풀려서 못하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정액인 등록할 수 있고 언제가 되면 서류를 매서 펼 준비하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주면 좋겠다.

복막 투석보다 혈액 투석 환자 훨씬 더 활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논문에서 염증) 다 원시적으로 이렇게 잡깐 만들었다가 금방 없어지니까 진짜 환자들이 견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이런 맹은 사실 없는 것 같긴 해요. 지금.

근데 두식 환자군 자체가 일단 연령이 많아서 이게 진짜 좀 약간 한계인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혈액 투석 환자는 너무나 오랫동안 투석을 했기 때문에 디게 장보도 많고 잘 안다고 해요.

그래도 좀 좋은 사람들은 혈액을 잘 수 있어서 디게 혈액 투석을 하는 너무 오랫동안 흰자들은 디게 혈액을 잘 수 있어서 혈액을 잘 관리하는 것 같아요.

여우리 우여리 생활을 애 어렵지 않아서 투여하는 데도 혈액이나 혈액을 또 잘 모으는데 혈액을 혈액에 혈액에 투여하는 데도 혈액을 잘 관리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혈액 투여는 대체로 혈액을 잘 수 있어서 디게 혈액을 잘 관리하는 것 같아요.

(유방암 센터 개방 업) 엄그 엉을 보면서도 들었던 생리이 이렇게 맹은 진짜 쓸 수 있는 시련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상에 나와있는 정보는 엄청 많은데 우리는 내 정보만 보고 싶잖아요

(유방암 센터 개방 업) 즉 온라인의 기능 이런 걸 되게 저는 중간고 생각을 했어야요

어떤 식으로든 그 대상자에게 맞는 원가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투석 환자들이 문자는 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접하는 정보만 보여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쓰면 엄으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무리 가쓰처히도 못 쓰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기는 아니 더 많이 쓰는 군에게 적용하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FEEL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지도 못하고 계속
피곤하고, 그리고 낮에도
앉아 있으면 약 너무
피곤해 가지고 거의 잠을
못 자면 그럴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희생해서)
미안하죠.

처음 진단
받고
우울했어요

이제 살기
힘들어지겠구나
싶었어요

초반에는 이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그런지
몰라도 너무
힘들었어요

(못 먹고
살 빼지고)
하여튼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안 하게
되면 이제 신작에
대한 걸 받았을 때
한 한 7~8개월
동안 짐들었어요.

배가 배가
이렇게 항상
불러 있어서
힘들죠.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어요.
그냥 그런 거는
다 끝났죠.

응 그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생활해야지,
그거 갖고
불만족하고 그러면
나만 힘들어지니까.

사회생활이 어렵고
그다음에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외출을 일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어

몸이 너무
아팠죠

식단으로 인한
어려움이
컸습니다.

병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출장이라든지 여행시
어려움이 있다. 갈려면
갈 수 있지만 ...
본가에도 많이 앉아계
되고 ... 가서
두석하는거 보여줘서
좋을 것도 없고 ...

기계 두석은 기계
위에다가 두석액을 4개
5개 올려놓고 밤 동안에
개가 혼자서 막 앉아 갔다
하니까 기계의 오류라든지
알람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두석을 한다는
자체가 되게
어렵고 슬픈
일이니까 ...